

# 동물병원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컨텐츠

KAHA HAB 사업단

김 광 식

## 서론

2007년부터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유대관계 (Human Animal Bond)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전 세계적인 불황과 동물병원을 비롯한 사료 및 제약업계 등 반려동물관련 전반적인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인 불황일수록, 또한 위기상황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우르면서 반려동물관련 주체들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방구로서, 또한 새롭고 멋진 파이를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서,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는 2007년,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KAHA HAB 사업단을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간략하게나마 KAHA HAB 사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 본론

KAHA HAB 사업단은 인간과 동물과의 바람직한 유대관계(Human-Animal Bond)를 강화함으로써 강아지와 보호자와 우리가 속해있는 사회와 동물병원 및 관련 산업 모두에게 정당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롭고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컨텐츠를 창조하고 디자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주체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려운 장기불황을 타개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AHA HAB 사업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반려동물 Wellness 문화사업 위원회
2. CAPP 활동위원회
3. 반려동물 홍보위원회
4. 반려동물 복지위원회



## 1. 반려동물 Wellness 문화사업 위원회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창조를 위한 일환으로서 Wellness Program인 Puppy party, Puppy class, CDME (Companion Dog Manners Education, 한국형 반려견 예절교육)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각 주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가. Puppy party (강아지 사회화 교실)

Puppy party는 어린 강아지 시절의 사회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후 4-14주령의 어린 강아지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데 있어, 특히 도심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적절한 사회화과정을 밟으면 인간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고 예의바르고 나쁜 버릇이 없는 멋진 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Puppy party는 어떻게 하는가?

Puppy party는 병원 내에서 여러 강아지와 여러 보호자(3살 이상의 어린이 포함)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강아지는 인간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보호자는 강아지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Puppy party의 장점이자 강점은 첫 째, 강아지에게 이롭다는 점입니다. 강아지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보호자와 함께 가장 안전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호자에게 이롭습니다. 보호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아직까지 나쁜 버릇이 없는 강아지에게 올바른 교육을 직접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세 번째, 인간사회에 대한 장점입니다. 이러한 사회화교육을 함으로써 강아지와 보호자간의 친밀도가 더욱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밀도의 증가는 유기견 방지효과도 있어, 사회적인 비용절감(유기보호 시설 등)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동물병원에 이롭습니다.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수의학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보호자와 강아지와 병원스텝들과도 친밀도가 증가하게 되어 동물병원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나. Puppy class (강아지 학교)

Puppy class는 Puppy party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한 사회화교육, 예절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강아지와 보호자가 함께 배우는 강아지 학교(교실)입니다. 대개 5주차 교육을 통해 강아지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우리들이 원하는 예의바른 멋진 개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화교육은 사회화목록을 토대로 지속적인 인간사회의 긍정적인 노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절교육은 앉

아, 엎드려, 일어서, 기다려, 리트리버 등 기초 예절교육을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실시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예방교육은 강아지시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개로 성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나쁜 버릇(밥그릇 지키기) 등을 미리 예방하는 교육을 포함합니다.

**다. CDME (Companion Dog Manners Education, 한국형 반려견 예절교육- 성견 학교)**

성견 예절교육인 영국의 GCDS (Good Citizen Dog Scheme, 켄넬 클럽)와 일본의 CDT (Companion Dog Test, 우량가정견 보급협회)의 장점을 살리고 한국 상황에 맞도록 디자인되어질 한국형 반려견 예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일반 보호자형과 교육자형으로 구분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0개월 이상 된 도심에 사는 개에게 가정과 공공장소, 그리고 다른 개와 함께 있는 곳에서 좋은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평가하는 반려견 예절교육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KAHA HAB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반려견 예절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인 CDMIP (Companion Dog Manners Instructors Program)를 일본동물병원복지협회와 삼성 에버랜드 치료도우미견 센터의 도움으로 마련하여, 2008년에는 기초과정을, 2009년에는 프로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CAPP (Companion Animal Partnership Program) 활동위원회**

한국동물병원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 CAPP 활동 사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P활동이란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가. 동물매개활동 (Animal-Assisted Activity, AAA)**

인간과 동물의 복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이나 아동과 동물과의 행복한 만남과 생활을, 동물의 복지로는 원치 않는 임신의 방지, 유기견 보호소 방문봉사활동, 유기견에 대한 새로운 가족 찾아주기 등의 동물매개활동을 말합니다.

**나. 동물매개교육 (Animal-Assisted Education, A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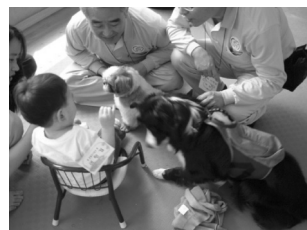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앞으로 성장해서 정치가가 되고, 동물관련 법을 만들고, 동물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어른이 될 어린이에게 동물을 기르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

고, 개와 만나는 법을 소개하는 등의 동물매개교육을 말합니다.

#### 다. 동물매개치료 (Animal-Assisted Therapy, AAT)

의사 및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병원, 노인복지시설, 정신지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한 치료학적 접근을 통해 인간사회에 대한 수의사의 사회환원적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KAHA HAB 사업단, CAPP 위원회 소속의 위원 7분이 삼성 에버랜드 치료도우미견 센터와 함께 2008년에는 부천의 글로리 병원과 서초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총 32회, 64시간을 실시하였으며, 올 2009년에는 부천의 글로리 병원(뇌성마비 장애아동 대상)과 용인의 보바스 병원(치매질환 노인 대상)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3. 반려동물 홍보위원회

반려동물 홍보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한국독스스포츠연맹에서 주관하는 한국드라이랜드 대회를 후원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KAHA HAB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부별 Wellness 프로그램의 교육 및 지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HAB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위원회입니다.

### 4. 반려동물 복지위원회

반려동물 복지위원회에서는 2008년 6월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벽제보호소와 삼송보호소, 11월 포천의 애신의 집에서 유기견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방역, 사료지원 등의 유기견 보호소 방문봉사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펫산업협회, 바이엘코리아, 한국화이자동물약품, 메리알코리아, Mars Korea, 이화팜텍 등 관련기업의 지원과 KAHA HAB 사업단 소속의 수의사 24명,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부서 이상은 박사 외 1명,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소동물임상동아리(SAP) 학생 40명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일반 동물보호자들의 관심 유도과 HAB 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한편으로 동물보호에 기여함으로써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동물과의 바람직한 유대강화를 통한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는 위원회입니다.



## 결론

이러한 세부계획의 추진에 앞서 우리 자신을 위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가 존재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인 것인가? 지난 호황기와 불황기 동안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개념적인 문제들이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Wellness 프로그램인 퍼피파티와 퍼피클래스와 CDME가 바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갈 도구입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친밀해지고, 또한 동물병원 의사와도 친밀해질 수 있는, 따라서 반려동물과 보호자와 동물병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반려동물문화 콘텐츠를 구현하는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부연

아래의 내용은 퍼피파티와 퍼피클래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아지의 나이가 생후 14주령이면 사람의 6-8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개가 1살이면 소형견인 경우 사람의 18세(대형견은 9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은 개로서는 1년인 18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개를 교육 시키겠습니까? 아마도 대답은 No일 것입니다. 생후 14주령이 개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이입니다. 생후 14-16주령 이전까지 강아지는 모든 사물 및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스스로 배웁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의 뇌를 마치 스폰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또한 스폰지와 같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호기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배우고,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화를 통해 다양한 사람과 소리와 물건 등에 노출시키면서 긍정적인 보상을 해 주면, 강아지는 심지어 헤어드라이어 소리, 동물병원에 가는 것조

차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사고방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압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미 사람의 사회화시기인 3살에서 8살 사이에 자신 주위의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래야 남은 일생을 무리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요. 40이 넘어서까지 남의 말만 믿고 주관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후 16주령이상이 되면 모든 낯선 상황들은 위협요소로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회화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많은 보상을 한다 해도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린 개의 40%가 분양받은 첫 해에 첫 번째 집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왜 훈련사들이 6-8개월 된 강아지 보호자들로부터 “우리 개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는 전화를 받을 까요? 이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조기사회화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생후 4개월령까지는 대형견인 리트리버도 그렇게 쭉쭉 자라지 않습니다. 말은 안 들어도 아직까지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주인의 통제로 끌려오거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6개월령 이상이 되면(사춘기 시작), 상황은 역전됩니다. 두 배 정도로 자라고(개의 성장주기표를 참조), 주인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쑥부리는 양도 2-3배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질질 끌고 다니고, 개는 이제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인도 물고, 이웃도 물고, 집을 나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강아지가 집을 나가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강아지를 찾겠습니까? 아마도 두 부류일 것입니다. 그래 잘 나갔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찾지 않는 부류와 훈련사에게 전화를 하는 부류일 것입니다. 전자인 사람의 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달 후 안락사 당할 것이고, 후자인 사람의 개는 훈련소로 보내질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인인 보호자의 책임이지만, 그 대가는 죽음과 엄한 군대식 훈련을 받는 개가 치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또한 강아지와 보호자와 임상수의사 모두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임상수의사는 개의 행동학적인 문제까지 다루어야 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개의 Wellness는 이들을 신체적 또는 행동학적 문제들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그들의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장수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올바른 임상수의사일 것이고, 이러한 병원이 진정한 Wellness Total Care Hospital일 것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창조는 우리 임상수의사의 몫입니다. 또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